

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

- FTA시대, 말 산업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-

출처 : 농림수산식품부

《주요내용》

- ◇ 비전 : 말 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, 국민 삶의 질 향상
 - 말 산업을 FTA 시대,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
- ◇ 5개년 목표 : 말 두수 3만두 ⇒ 5만두, 승마인구 2.5만명 ⇒ 5만명, 승마장 300개소 ⇒ 500개소, 체험인구 63만명/년 ⇒ 150만명/년, 전문 인력 250명 ⇒ 1,100명, 일자리 1만개 창출
- ◇ 추진과제 : 말 산업 4개 분야, 27개 중과제로 구분 추진
 - 승마시설, 호스랜드 조성, 전문 인력양성, 특구지정 등 인프라 확충
 - 전문농장 육성, 시설현대화, 말 유통개선 등 말 산업 내실화
 - 체험승마인구 확대, 유소년 승마단 활성화, 말 부산물 가공품 등 연관 산업 육성 등 말 수요 확충
 - R&D 강화, 제도개선, 통계기반 구축, 홍보 강화 등 지속기반 구축

1. 말 산업 개념 및 육성 필요성

가. 말 산업 개념

- 「말 산업」이란 말의 생산·사육·조련·유통·이용 등에 관한 모든 분야의 산업을 말함 (말산업육성법 제2조).
- 말의 생산업·사육업·유통업, 말 이용업, 말 조련업·장계업(裝蹄業)·재활승마지도업·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
- 말의 산물(産物)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·약품 또는 향장품의 제조업·판매업,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

제조업·판매업,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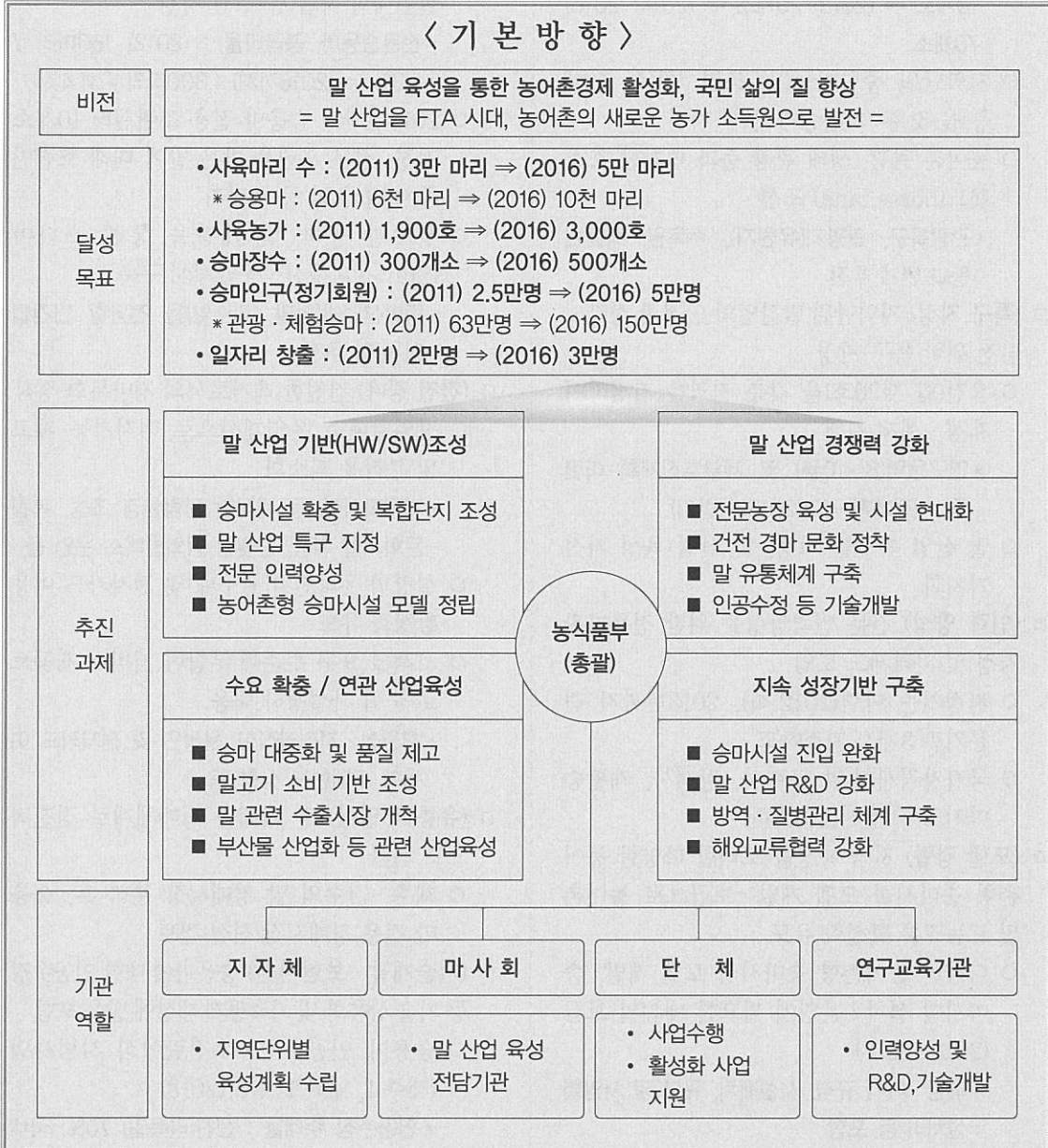
나. 말 산업 육성 필요성

- 말 산업은 생산·육성·유통·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이 농업·농어촌과 관련이 깊어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인데도 그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발전에 한계
- 또한 말 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비례하여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 산업(1차~3차 산업)인데도 국민 관심이 낮고, 산업화 초기 단계로 인프라 등 산업 구조가 취약
- 따라서 시장개방 가속화, 경제성장에 따른 승

마수요 증가 등에 맞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말 산업을 육성시켜 농촌 대체 소득원으로 발전시킬 필요
 ○ 농촌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한 다양한 콘텐츠

츠 발굴 등
 □ 아울러 승마 활성화·연관 산업발전 등 말 산업 육성을 통해 말산업의 핵심 동력인 건전 경마 문화 조성에도 일조 필요

2. 말 산업 육성 기본방향 및 세부과제



가. 말 산업 인프라 조성

- (시설 확충) 승마시설 확충 및 복합단지 조성
 - 현재 300개소의 승마시설을 2016년까지 500개소로 확대
 - * 지원계획 : (2006~2011) 53개소 ⇒ (2012) 10개소 ⇒ (2013) 20개소 ⇒ (2014~2016) 70개소
 - 지역단위 종합기능(말 조련, 치료, 승마 등)을 갖춘 “거점승마센터” 지정
 - 농어촌 관광, 생태 관광 등과 연계한 호스랜드(horse land) 조성
 - * 관광특구, 관광지(유원지), 수목원, 식물원 등과 연계 추진
- (특구 지정) 지역단위 말산업의 안정적 정착·발전 위한 특구 지정
 - 요건(법 제20조)을 갖춘 지역을 지정하여 재정·세제 지원
 - * 연구용역(8~10월) 및 세부추진계획 마련 후, 지정계획 공고(2013 상반기)
 - 말 산업 특구를 지정, 말 산업 육성 거점 기지화
- (인력 양성)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자격제도 도입
 - 지정기준 마련(2012. 하), 2013년까지 전문기관 3개소 지정하고,
 - 국가자격시험(말 조련사, 장제사, 재활승마지도사) 실시(2012. 하)
- (모델 정립)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모델 개발·보급으로 농어촌 및 도농교류 활성화 유도
 - 다양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모델 개발, 승마시설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보급(2012~2013)
 - * 마장·마사 규격, 시설배치, 규모 및 사양별 설치비 등 포함

나. 말 산업 경쟁력 강화

- (승용·경주마 육성) 승용마 전문 생산농장 육성 및 우수 종마 도입
 - 우수 승용마 생산을 위해 2016년까지 전문 생산농장 100개소 육성, 이를 위해 시설현대화 자금 등 우선 지원
 - * 전문승용마 공급비율 : (2012) 160마리 / 2.3% ⇒ (2016까지) 1,300마리 / 11.4%
 - 2016년까지 승용마 전용 조련센터 10개소 지정, 전문 훈련을 받은 말에 대해 조련인 증서 발급 및 등록 관리
 - 우수한 종마 및 개량을 통해 스타마(Star-馬) 생산·공급체계 구축
 - * 종마산업(씨암말, 씨수말)을 전담할 민간법인 설립 추진
- (건전 경마) 건전한 레저로서의 경마문화 정착
 - 장외발매소 운영개선으로 레저기능 제고 및 부작용 최소화
 - * 지정좌석식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, 복합 문화시설 확충, 공원형 장외발매소 운영 등
 - 실명의 온라인 마권구매 및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 유도
 - 고객별 요구 수준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으로 불법 사설경마 대응
 - * 회원실·지정좌석식, 온라인 및 전자카드 이용객 구매한도 상향 등
- (유통 투명성) 말 거래를 경매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
 - 제주·장주의 말 경매시장 분석 후, 승용마 전용 경매시장 신설 검토
- (기술개발·보험지원) 승용마에 대한 인공수정 등 기술 상용화 및 가축공제 대상에 말을 포함
 - 승용마 인공수정·수정란이식 시범사업(제주 1, 내륙 1) 실시(2013)
 - * 인공수정 수태율 : 선진국(독일) 70%, 국내

40% 수준

- 신고된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해 보험비용 일부 지원 추진

다. 수요 확충 및 연관 산업육성 등 성장기반 구축

- (승마 대중화) 승마체험 확대, 승마대회 개최 등을 통해 승마 붐 조성
 - 승마체험 기회를 2016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확대(현재 7천명 정도), 유소년 승마단 50개소 설립 및 승마체험자 중심의 승마대회 개최
 - 재활승마 시범사업 등을 통한 말 매개치료 활성화 기반 구축
 - * 재활승마센터 지원(2012, 15억원), 승마힐링센터 설립·운영(2012 : 2개소 ⇒ 2013 : 10개소) 등
 - 교도소·소년원 등에 찾아가는 교정 승마 교실 운영 추진
 - 승마초보에서 숙련 단계까지 종목별 기승능력(5단계) 인증제 도입(2013)
- (말고기 소비 확대) 육용마 전문농장 육성, 말고기 가공식품 개발, 유통 효율화 등을 통해 말고기 소비를 확대하고, 농촌 소득원으로 자리 매김
 - 육용마 전문농장 육성,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판매장 확대, 가공식품 개발, 요리경연 대회 개최 등 추진
 - * 식품소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마육 및 가공식품개발 연구용역 실시(2013)
 - * 말고기는 오메가-3 지방산 다량 함유, 당뇨병 등 기능적 효능
- (수출시장 개척) 중국 등 동남아 시장 확대에 대비 지원체계 구축

- 수출업무 전담지원기구 설치 및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홍보·마케팅 강화
 - * 국제 말 산업 박람회(HORFA, 중국) 정기적 참석 등 인적·물적 해외교류 확대

- (관련 산업육성) 부산물 재활용 및 장구류 등 국산화 추진

- 馬油·뺨 등 부산물 활용을 통한 화장품·영양제 등 고부가가치화
- 장구류 국내 생산 시, 농업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하여 창업지원(2013~)

라. 지속 성장기반 구축

- (투자여건 개선)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및 진입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
 - 공공·재활·개별시설의 지원 단가 현실화, 지원기준 통일, 사업자 평가기준 및 절차 등 개선
 - 초지법·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진입 규제 및 부담 완화
 - * 임업용산지에 승마시설 설치 허용, 초지법상 승마시설 설치 시 대체 초지 조성비 면제, 30마리 이하 말 사육농가는 부업 축산에 포함(소득세법 시행령)되도록 협의
 - 말 관측 실시(2013), 중장기적으로 '말 자조금 제도'를 도입, 수급조절 기능 수행
- (R&D 강화) 산업화 초기인 점을 감안, 현장 중심의 R&D 우선 추진
 - 말 산업 육성 전담기관 내 말 산업 연구소 설치·운영(2012)
 - * 대학, 연구기관 등과 역할을 분담하는 개방형 R&D 형태로 운영

- (관리체계 구축) 말 방역·질병관리체계 및 말 산업 통계 구축
 - 말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매뉴얼 개발·보급(2013~), 일본뇌염 등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지원(2012~)
 - 말의 용도·품종, 소유자, 생산·사육·조련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록 관리(말산업육성법, 2015년 이후 의무등록)
- (해외협력) 말 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 교류협력 강화
 - 한·중·일, 한·독·프기술협력 MOU 체결
 - * 해외 연수(5명 이내, 6개월 단기) 및 해외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운영
 - 말 산업 육성 국제세미나 개최(일본, 중국, 미국, 독일, 프랑스 등)

3. 기대효과

◇ 금번 대책을 통해 2016년까지 말 산업 고용창출 규모는 약 1만명, 연관 산업 생산유발 규모는 약 8천억원으로 추산

- 또한, 농어촌 경관과 조화된 승마관광 활성화로 도농교류 확대 및 농어촌 체험마을 중심의 신소득원 확충 기대 예상

- (성장 효과)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따를 경우, 향후 수 십 년간 지속적으로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

	2012	2016	2020
* 승마인구(만명) :	2.5	5	7
* 고용인력(만명) :	2	3	4
* 말 사육두수(만두) :	3	5	8

- (농어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) 농가는 말 생산·판매, 관광 등을 통해 새로운 대체 소득 발생, 축산농가 등 부업소득원 창출
 - 농어촌의 경관과 조화된 승마관광이 활성화 될 경우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으로 인구 유입 증가, 농어촌체험마을 활성화
 - * 장애인 재활과 게임중독 등 청소년 정서순화·심신치료에 유용
- (재정기여 확대) 말 산업 육성을 통해 국세(농특세), 지방세(레저세, 지방교육세), 축산발전기금 등 국가 재정기여 지속
 - 최근 5년간 경마 매출액으로 연간 1조5천억원의 국가재정에 기여
 - 지방세 매년 1조2천억원, 축산발전기금 2,300억원 수준 기여
 - * 경마 수익금의 지자체 재정지원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 기여 확대를 통해 경마에 대한 거부감 해소 기대 ☺

